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여성참정권

엠마골드만

엠마골드만
여성참정권
1910 년

kr.theanarchistlibrary.org

1910 년

— 편집자주 —

이 글은 엠마 골드만이 1910 년 『아나키즘과 그외에세이들 Anarchism and Other Essays』 이라는 제목으로 펴낸 책에 실린 에세이다.

한국어 번역은 『저주받은 아나키즘』 (김시완역, 우물이있는집, 2001) 이라는 다소 엉뚱한 제목으로 출판되었으나 현재는 절판되었다.

엠마 골드만의 에세이들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하나의 문건으로 취급하게 되어 여기서 는 〈여성참정권〉 만을 옮긴다.

우리시대를과학적성취와진보의시대라한다. 그런데도여전히미신을 숭배하는것은이상한일이아닐수없다. 미신의양태나내용은다르지만 인간의마음에작용하는영향력과재앙은과거의미신과다를바없다.

우리시대의미신은보통선거권이다. 보통선거권이라는목표를아직 성취하지못한사람들이권리를얻기위해피흘리는혁명적투쟁을하고 있고, 이미그권리를장악한사람들은이전능한신전에많은희생자를바쳤다. 그러니이보통선거권의신성함에의문을갖는자에게는화있으리다!

남성보다여성이보통선거권을숭배한다. 여성의우상은시대에따라 여러가지로변천되어왔지만한번도무릎을꿇고손을모으고자기가숭배 하는신상神像의발이흠에불과하다는사실을인식하지못했다. 여성은아 득한고대로부터모든우상들을지극정성으로섬겼다. 여성들은우상들이 요구하는희생을치러야했다. 여성의자유와자기심장의피와자기생명까지도바쳐야했다.

니체의다음경구를기억하라.

“여성에게갈때채찍만가져가라.”

이말은매우잔인하게들리지만바로이한문장에우상들을섬기는여성들의태도가어떤것이었는지말해주고있다.

종교, 특히기독교는여성들을열등한생명체, 곤노예로평가절하했다. 그래서여성의본성과영혼은억압되었다. 그렇지만여성이가장열심히기독교를지탱하는세력이었다. 확실히종교가여성으로부터지지를받지못했다면이미오래전에사람들의생활속에서사라졌을것이다. 전세계적으로가장열심히일하는선교사들과가장열심히교회일을하는사람들은여성들이다. 이들은자신의정신을옥죄고자기몸을노예화하는우상들의제단에자신을희생시키고있다.

참으로만족할줄모르는괴물인전쟁은여성에게소중한모든것들을빼앗는다. 전쟁은여성의오빠, 남동생, 연인, 아들을빼앗고그녀에게고독과절망의삶을안겨준다. 그러나전쟁을누구보다지하고숭배하는자도

여성직종의양이아니다. 일의질이문제다. 여성이투표권을행사할수는 있지만투표권이새로운질적변화를가져오는것은아니며, 그것은여성자신의삶의질을향상시킬것그어느것도얻을수없다. 여성의발전과자유와독립은여성자신을통해이루어진다. 그것은첫째, 여성자신을성적상품이 아닌하나의인격체로주장해야이루어진다. 둘째, 자신의몸을마음대로 하고자하는자의권리를거부하라. 즉여성자신이원하지않으면임신을거부하라. 신, 국가, 사회, 남편, 가족에대한복종을거부하라. 그리고삶을보다단순화하라. 그러나깊고풍요롭게하라. 모든영역에서삶의의미와본질을배우려애쓰고, 여론과대중적비난에대해두려워하지말아야한다. 투표권이아닌바로이런노력으로여성은해방되고지금까지이세상에 없었던강력한세력으로등장할수있게된다. 여성은참된사랑과평화와조화를이룰수있고, 신성한불을담을수있고, 생명을부여하며, 자유로운남성과여성을창출하는세력이다.

있다. 그러므로 나는 아마 여성의적으로 낙인찍힐 공산이 크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수정할 생각은 없다. 나는 처음에 내가 말한 바를 계속 주장할 뿐이다. 여성이 정치권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성이 정치권을 더 개선시킬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여성이 남성의 실수를 개선시킬 수 없다면 왜 여성이 나서서 남성의 실수를 계속하려 하는가?

역사는 거짓의 축적물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역사에는 몇 가지 진실이 담겨 있다. 우리는 이 진실의 안내를 받아 미래를 개척한다. 남성들의 정치활동의 역사를 통해 남성은 무슨일이든 보다 직접적이고 비용이 덜 들고 영속적인 방식으로 해나간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사실 남성이 차지한 모든 땅들은 끊임없는 전투의 연속이었다. 투표권이 아니라 자기를 주장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여성이 투표권의 도움을 통해서 스스로 해방되리라고 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가장 끔찍한 절대왕정의 나라 러시아에서도 여성은 투표권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투쟁적 의지로 남성과 동등한 위치를 얻었다. 러시아 여성은 스스로 투쟁하여 배움의 길과 생업의 길을 얻었고, 동시에 남성의 존경과 동료의 식을 획득했다. 아니, 그 이상을 얻었다. 러시아 여성은 찬양받았다. 전세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이런 결과를 투표권이 아니라 경이로운 영웅적 행동과 용기, 능력과 의지력으로 이루어냈다.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각고의 고통을 인내함으로써 얻은 결과였다. 보통 투표권이 실시된 나라나 미국 내 몇 개 주에서 러시아 여성의 승리와 같은 승리를 얻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미국 여성의 업적을 되돌아보면 여성 투표권이 아닌 보다 심오하고 강력한 요인이 여성 해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네카폴스 협약 Seneca Falls Convention 에서 극소수의 여성들이 모여 남성들과 동등한 교육권과 다양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균등의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 고작 62 년 전의 일이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성취요, 승리인가! 무식한 자가 아니고 서야 누가 여성을 단지 부엌 데기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또는 가감히 이런 저런 직업은 여성에게 개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겠는가? 그 후 60 여년 동안 여성에게 유리한 새로운 분위기 와 새로운 삶의 형태가 조성되었다. 이제 모든 인간적 자유와 활동 영역에서 여성이 주도적인 인물로 등장했다. 투표권이 없어도, 법을 만들 권리가 없어도, 판사와 간수와 사형 집행자가 되는 특권이 없어도 모든 일을 여성이 할 수 있다.

그렇다, 나는 아마 여성의적으로 몰릴 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여성에게 조금이라도 빛을 비출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여성의 불행은 남성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남성을 능가하는 데 소모한다는 것에 있다. 여성은 오랫동안 누적이 된 전통 때문에 물리적으로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었다. 물론 몇몇 성공한 여성들도 있지만 얼마나 과도한 희생과 비용을 치르고 얻은 성공인가. 중요한 것은

한 여성이다. 아이들에게 정복과 권력을 사랑하라고 주입시키는 자가 바로 여성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전쟁의 영광을 속삭여 주는 사람이 여성이다. 엄마들은 나팔소리와 총소리로 아이들의 잠을 깨운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승자에게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 주는 자도 역시 여성이다. 그렇다. 이만족할 줄 모르는 괴물인 전쟁에게 최고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자가 여성이다.

여기에 가정이라는 이상도 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숭배대상이냐! 가정은 여성의 생애에 에너지를 빨아먹는, 황금막대기가 있는 현대적 감옥이다. 가정의 화산면 때문에 여성은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정주부로서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하지 않는다. 여성은 가정에 강력히 집착한다. 자신을 속박하는 그 가정에 집착한다.

여성들은 자신이 교회와 국가와 가정에 지불하는 엄청난 희생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자유롭게 해줄 보통 선거권을 원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여성들에게는 선거권이 자신을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여성 투표권 주창자들은 이를 불경스럽다고 비난한다.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더 나은 기독교인과 가정주부 그리고 국가의 충성스러운 시민이 되기 위해 여성 투표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여성 투표권은 여성이 아득한 옛날부터 수행해 온 희생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여성들이 새로운 이상, 여성 투표권 앞에 엎드려 열광하고 헌신해야 하다니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가. 과거의 여성이 그랬듯이 얼굴에 미소를 띠며 채택해, 감금, 고문 그리고 모든 형태의 비난을 견디고 있다. 심지어는 가장의 식있는 여성조차도 옛날처럼 20 세기의 신, 여성 투표권으로부터 기적을 바라보고 있다. 생명과 행복과 기쁨과 자유와 독립 그밖에 모든 것이 이 투표권만 얻으면 당연히 나오리라 믿고 있다. 이런 맹목적인 믿음에 빠져 여성은 50 년 전에 이미 지성인들이 인식했던 바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로 투표권이 악이라는 사실, 투표권이 사람들을 노예화하고 눈을 가려 자신들이 교묘하게 복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여성의 평등한 투표권에 대한 요구는 여성도 모든 사회 문제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지녀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투표가 권리라면 아무도 이런 주장에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인간의 마음은 우둔하여 부담을 지는데에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무리는 법을 만들고 다른 한 무리는 그 법에 강제로 순종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가장 가혹한 짐을 지우는 게 아닌가? 그런데도 여성은 투표권을 황금의 기회라고 아우성치며 달라고 한다. 이 투표권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불행이 생겼고 남성은 자신의 순수함과 독립성을 빼앗겼다. 이 투표권으로 사람들은 철저히 패배했고, 몇몇 무자비한 정치가들의 손아귀에 꼼짝없이 붙잡힌 먹이가 되었다.

불쌍하고 어리석고 자유로운 미국 시민들이여! 고작 굶어 죽을 자유, 위대한 미국의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자유를 외치며 보통 투표권을 향유하

는구나. 이권리때문에우리의팔다리는쇠사슬을차게되었다. 우리가받은보상이라고는파업이나피켓시위를할수없다는, 즉자기노동의열매를강탈당하는것외에는아무것도할수없다는가혹노동법이다. 20 세기의우상, 투표권으로인한재앙들을보면서도여성들은전혀배우는것이없다. 그러면서여성이정치를깨끗하게정화하리라고확신하고있다.

말할필요도없이, 나는여성을불평등하게하는보수적관점에서여성투표권에반대하는것이아니다. 여성이남성과함께동등한투표권을가지말아야할신체적·생리적·정신적이유는없다. 그러나남성이실패한곳에서여성이성공하리라고맹목적으로확신하지도않는다. 그건영터리주장이다. 여성이사태를더악화시키지는않을지라도더개선시킬수도없다. 따라서여성이정화하기어려운어떤대상을성공적으로정화할수있다는가정은여성에게초자연적인권능이있다고믿는것이나마찬가지이다.

여성의최대불행은천사아니면악마로인식되는것이다. 여성의참된구원은여성을이지상으로끌어내리는것이다. 즉인간으로여성을보는것이중요하다. 모든인간은어리석음과실수를범하기마련이다. 그런데이런잘못을교정시킬수있는능력이여성에게있다고믿을수가있는가? 여성이정치적인영역으로진입한다고해서본래의정치적독성이줄어들 것이라고생각할수있는가? 아무리열정적인여성참정권론자라하더라도그런어리석은주장을하지는않을것이다.

사실보통투표권에대해가장많이연구한사람들은현재의모든정치권력체제는불합리하고, 삶의당면한문제들을해결하는데전적으로부적절하다는점을이미깨달았다. 여성투표권을열렬히신봉하는사람의하나인 헬렌섬너 (Helen L. Sumner) 박사도이런관점에동의하고있다. 헬렌여사의훌륭한저서 『평등투표권 Equal Suffrage』에서그녀는이렇게언급한다.

“콜로라도에서우리가살펴본바로는평등투표권이현재체제의가장부패하고타락한특성을그대로반영하는충격적인방법에복무하는것이다.”

물론섬너박사는마음속에특정한선거체제를염두에두고한말이지만전체대의제에도똑같이적용할수있다. 그러므로대에서정치적변수로서여성이얼마나자신과타인을이롭게할것인가를의심하지않을수없다.

내가이렇게주장하면우리의열렬한투표권옹호론자들은이미여성투표권이있는미국내주들과외국을보라고말한다. 호주와뉴질랜드, 핀란드, 스칸디나비아와국가들, 그리고미국내에서여성투표권을허용하고있는아이다호, 콜로라도, 와이오밍, 유타주에서여성이무엇을성취했는지잘보라. 단지먼거리가매력을가져다주는것뿐이다. 폴란드속담을인용하겠다.

“우리가있지않은곳은좋아요.”

사람들은여성투표권이있는곳의여성들은다를것이라고가정하고, 그들에게는더큰자유와사회경제적평등, 세련된인간적삶, 대대적인사

여성정치지도자들을지지하여당선시킨결과일것이다. 이것이영국에정착된보편적인선거운동의결과이다. 그들이주장하는것과는달리, 전혀 자신들을함께걱정해주지않는, 정의라고는조금도보여주지않는투표의 힘을믿는사람들대부분이그런결과를낳는다.

미국의선거운동의공약은최근까지탁상공론의, 사람들의경제적 요구와는완전히동떨어진것이였다. 따라서수잔앤서니 (Susan B. Anthony) 라는여성은그일에대해무관심했을뿐아니라적대적이였다. 그녀는 1869 년뉴욕에서여성들에게차라리파업을하는것이낫다고말했다.⁵ 이러한그녀의태도는죽기전에는변하지않을것같다.

물론여성노동조합연맹 the Women's Trade Union League 과 같은단체에속해있는여성참정권론자들도일부있다. 그러나그들은소수이고그들의활동은본질적으로경제적이다. 나머지사람들은단지당연히해야하는것쯤으로투표를생각한다. 투표가가난한자를위한것이아니라면부자를위한것임은뻔한이치아닌가? 8 천만임금노동자를위한것이아니라면이들희생자들이 1 년간버는돈이상을일주일만에당진하는게으르고, 기생적인여자들을위한것임은뻔하지않은가? 그런평등을들어보았는가?

미국처럼교만과속물근성이판치는나라도드물다. 특히미국중산층 여성들의속물근성은유별나다. 이들은자신이남성과동등하다고생각하고, 순수함, 선량함, 도덕성에서는남성보다도오히려우월하다고생각한다. 미국의보통투표권자들이여성의투표권을무슨기적적인힘을발휘하는것처럼여기는것도이상한일이아니다. 이중산층여성들은스스로우쭐해하며투표권이자신을노예화한다는사실을간파하지못한다. 남성에의해서노예가되는것이아니라자기자신의어리석은생각과관성때문에노예가된다는사실을모른다. 투표로는이서글픈사실을없앨수없다. 오히려이런현실을더강화할뿐이다.

위대한미국여성지도자들중의한사람은여성이동등한임금을받을권리가있을뿐아니라심지어는남편의임금조차도받을권리가법적으로있어야한다고주장했다. 여성을부양하는데실패하는남자는 처벌되어야하고수감된남자의수입역시침착한아내의손에의해모아져야한다는것이였다. 그동안세계의석학중에서도실패한사회악일소가여성의투표권으로가능하다고주장하는사람들은많았다. 이우주의창조자가모든계획을미리세워놓았다면참으로유감스러운일이다. 그러나그계획대로여성의투표권이행사되는것이라면남성을완전히능가할것은자명하다.

미신승배의유포만큼위험한것도없다. 우리가이단자들을화형에처하는시대를벗어났음에도, 우리는아직도사회적으로용인된관념과는다른생각을가진사람들에대해서비난하는편협한정신을벗어나지못하고

⁵ Dr. Helen Sumner, 『Equal Suffrage』.

어난일이고, 이 사실을 여성투표권을 옹호하는 자들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인간에 대한 여성의 이러한 편협한 태도만이 여성 정치인이 남성보다 우월한 정치인이 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다른 요인들도 많다. 여성은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남성에 기생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평등 개념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강력히 요구한다. “그러나 험악한 지역에서 선거운세를 하려고 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³ 자기가 이념을 위해 지옥과도 같은 곳에서도 정면으로 맞선 러시아 여성들과 비교할 때 이것은 얼마나 알팍한 평등의식인가!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요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의 존재가 남성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하면 분개한다. 남성들이 자신 앞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고, 모자를 들어올려 인사하지도 않고, 자신이 일어날 때 자리에서 발뺌 일어나지도 않으면 무례한 행동이라고 분개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정말 사소한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미국의 여성유권자들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영국의 숙녀들은 이제 확실히 이런 어리석은 개념에서 벗어났다. 영국 여성들은 자신의 성격과 힘을 최대로 발휘했다. 영국의 여성유권자들이 보인 영웅성과 강인함에 경의를 표한다. 영국 여성들의 열정적이고 호전적인 태도는 일부 미국 여성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우리 자신의 맥 없고 굶대 없는 모습을 반성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영국의 여성유권자들도 참된 평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참된 평등의식이 있다면, 여성노동자 대중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고 한 줌도 안 되는 귀족 여성만을 위한 언터미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많은 용감한 투사들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으며 투쟁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사실 정치가는 기회주의자다. 정치가들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으면 중간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지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여성들은 투표권이 무기라고 생각하고 기득권을 박탈당한 자로서 경제적으로 우월한 계급보다 더 많은 투표권을 원한다. 경제 기득권층은 이미 자신들의 경제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다.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의 유능한 지도자인 에멀린 팡크허스트 (Emmeline Pankhurst) 여사조차도 미국 강연 때 정치적으로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 사이에는 어떤 평등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영국의 여성노동자들이 여성 기득권자들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새클턴 법안 Shackleton bill⁴을 통과시킬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 열성, 헌신, 그리고 고신에 대한 독실한 믿음으로 무장한 애니 케니 (Annie Kenney) 와 같은 계층들이 자신의 경제 지배자를 당선시켰듯이 자신들의

³ Dr. Helen A. Sumner.

⁴ 새클턴은 노동자 리더였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의 지지자들인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을 입안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당연했다. 영국의회는 이런 배신자들이 가득하다.

회적 투쟁, 그리고 인류가 관련된 모든 중요한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여성들은 투표를 하고, 법률 제정을 도울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나라의 노동 조건이 지금 막 여성투표권 문제로 역사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영국보다 더 나은가? 이들 국가의 어머니들은 영국보다 더 모성을 보호받고, 아이들은 영국의 아이들보다 더 행복한가? 이들 국가의 여성은 남성과 여성에게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청교도적 도덕 규범에서 해방되었는가? 유세하러 돌아다니는 정치가가 아니라면 그 누가 감히 이런 질문들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호주와 뉴질랜드를 평등 투표권 성취의 성지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한편, 호주의 현실 정치를 아는 사람은 호주의 정치가 언론의 입을 막고 가장 혹한 노동법을 발효시켰고, 중재 위원회의 허가도 없이 파업을 반란과 동일한 범죄로 규정했다는 사실을 다 안다.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이 여성투표권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호주가 경이로운 여성노동자의 천국으로 언급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여성의 영향력으로 보스 정치의 굴레에서 노동을 해방시킬 수 없다.

핀란드도 여성에게 평등한 투표권을 부여했다. 아니, 정확히 말해 의회에 앉을 권리를 주었다. 이 권리 가 주어진 이후 핀란드 여성은 러시아 여성의 열정보다 더 뜨거운 영웅적 열정을 발현했는가? 핀란드역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차르의 철권 통치하에 신음했다. 핀란드의 어디에 혁명적 러시아 여성들 같은 인물들이 있는가? 어디에 핀란드의 페로프스카리아 (Perovskaias), 스피리도노바 (Spiridonovas), 휘그너 (Figners), 브레쉬코프스카리아 (Breshkovskaias) 가 있는가? 조국의 문제를 위해 기꺼이 시베리아 유형을 가는 핀란드의 어린 숙녀들이 어디 있는가? 핀란드는 지금 슬프게도 영웅적 해방자가 없다. 어떤 이유로 투표권이 영웅적 해방자의 출현을 막는 역할을 했는가? 핀란드에서 자기 민족의 복수를 감행한 자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다. 남성은 투표권보다 더 효율적인 무기를 사용했다.

여성이 투표를 하는 미국 내 여러 주들이 있다. 이런 주들은 멋진 주라고 계속 칭송을 듣는다. 그러나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주에서는 무엇을 성취했는가? 성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투표권 없이 열정적인 노력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이었는가?

사실 여성투표권이 있는 주에서는 여성에게 평등한 재산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재산이 없는 여성 대중들에게 그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수많은 임금노동 여성들은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쁘다. 평등 투표권으로는 이런 여성노동자들의 여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미칠 수도 없다. 이 점은 섬너 박사도 인정하고 있다. 섬너 박사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는 열정적인 투표권 주창자이기도 하다. 평등 투표권 법에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뉴욕주의 대학 교평등 투표권 연맹

Collegiate Equal Suffrage League 에서 콜로라도로 파견된 섬너 박사는 평등투표권에 반하는 말을 가장 싫어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평등투표권은 여성의 경제적 여건에 아주 조금 영향을 미쳤다. 여성은 같은 일을 하고도 동등한 보수를 받지 못했고, 콜로라도의 여성들은 1876년부터 학교에서 평등투표권을 행사했지만 여교사의 급여는 캘리포니아 여교사 급여보다 적다.”

섬너 박사가 말하지 않은 사실 하나가 더 있다. 콜로라도의 여성들은 34년 동안 학교에서 평등투표권을 행사했고, 1894년부터는 모든 여성이 평등투표권을 가졌지만 몇 달 전 실시된 인구조사 결과 덴버 시 한곳에서만 15,000 명의 저능아 학생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콜로라도의 여성들은 “가장 엄중한 아동과 동물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콜로라도의 여성들은 궁핍하고 지능이 떨어지고 비행을 저지르는 아이들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서 15,000 명의 저능아가 있다니 얼마나 여성의 보살핌과 관심이 없었다는 끔찍한 증거인가? 특히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인 청소년 문제에서 여성투표권이 완전히 실패한 상황에서 여성투표권을 찬양할 근거가 어디 있는가? 여성이 보다 우월한 정의로 정치물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결과 물이 어야 할 정의로 법은 어디에 있는가? 1903년 광산 소유주들은 서부 광부 노조 Western Miners' Union 를 상대로 게릴라 전투를 벌였다. 당시 제너럴 벨 (General Bell) 이 공포 통치를 하고 있었다. 이자는 한밤에 잠자는 사람들을 끌어내 국경선까지 납치한다 음 구덩이에다 버렸다. 그러면서 “법 따위 지옥에 나가라지, 몽둥이가 법이야” 하고 말했다. 이때 여성 정치인들은 어디 있었는가? 왜 여성 정치인들은 이런 만행을 막기 위해 자신들의 참정권을 행사하지 않는가? 아니, 참정권을 행사하기는 했다. 여성 정치인들은 가장 공명정대한 인품을 지니고 있는 자유주의적 인물 와이트 (Waite) 주지사를 패배시키는데 표를 던졌다. 와이트는 결국 광산주들의 대표요 노조의 적이자 콜로라도의 제왕 피바디 (Peabody) 주지사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말았다. 남성 유권자만으로도 이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 여성투표권이 시행됨으로써 여성과 사회는 어떤 이득을 얻는가? 여성이 정치를 정화할 것이라는 주장은 미신에 불과하다. 여성투표권이 실시되고 있는 아이다호, 콜로라도, 와이오밍, 유타 주의 정치 상황을 아는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본질적으로 순수한 여성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자기만큼이나 선량하게 만들기 위해 줄기차게 각고의 노력을 했다. 그래서 아이다호주에서는 여성투표권자가 거리의 여성들로부터 투표권을 빼앗았다. 거리의 여성들은 투표하기에 부적절한 “음란한” 여자라는 것이다. 여기서 “음란하다”라는 뜻은, 물론 돈을 위해 결혼하는 매춘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불법적 매춘과 도박이 금지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법 자체가 여성적 특

성을 지니고 있다. 바로 법은 항상 금지하는 특성이 있다. 모든 법들이 화려하다. 법이 진전될수록 결국은 지옥으로 향한다 모든 문을 연다. 매춘과 도박은 금지법이 발표된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번성했다.

콜로라도에서는 여성의 청교도주의가 보다 극적인 형태로 표출되었다.

“불결하다고 이름난 정치인, 술집 관계자는 여성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 서정치에서 떨어지나갔다.”¹

콤스톡 (Comstock) 형제가 더 잘 할 수 있을까? 청교도 선조들이라면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여성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가. 나는 여성투표권이 여성들의 지위를 높인다고 보다는 굶이 나보고 딱이나 먹는 정치적인 관점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이 선량한 의도에서 나오기 보다는 콜로라도 여인의 말처럼 “한 번도 들어가본 적이 없는 집에 쳐들어 가 정치적인 것이건 아니건 모든 것을 약탈해 가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² 그렇다, 인간의 정신, 그 세세한 구석구석까지 뒤져서 가져가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런 콜로라도 여인의 비난만큼 여성 대부분의 감정을 해소시켜주는 것은 없었다.

“지저분하기로 이름난 남성과 살롱 관계자들”이라. 확실히 여성 참정론자들에게는 더 많은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참견 잘하는 국가는 심지어 정치나 환경을 완전히 정화한다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데 그 죄악상이 어찌 살롱 주인에 비하겠는가? 미국적 위선과 편견은 금주법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금주법은 부자들은 술취하게 내버려 두면서 가난한 자가 술을 마실 곳은 살살이 뒤져 감시하였다. 다른 이유가 없다면, 삶을 향한 여성의 편협하고 순결한 태도는 정치적인 권력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에 더욱 큰 위협을 가져다 준다. 남성은 이미 오래 전에 여성을 집어 삼키고 있는 미신을 극복했다. 경제적 경쟁의장에서 남성은 효율성과 정확한 판단력과 능력과 신속함을 과시하고 있다. 남성은 다른 사람의 도덕성을 청교도적 잣대로 재려고 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다. 정치 활동에서도 남성은 맹목적이지 않다. 정치라는 제분소에서는 양이 문제이지 질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간파하고 애초부터 감상적 개혁자가 아니면 고리타분한 보수주의자가 된다. 남성은 정치란 그저 거대한 습지 이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정치에 뛰어들어 여성은 야수의 본성을 알아야 한다. 여성은 자기만족감과 이기주의를 통해 야수를 애완 동물처럼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린 양과 같이 부드럽고 달콤하고 순수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은 자신의 표가 돈 때문에 매수된 적이 없다는 듯이, 여성 정치인은 매수될 수 없다는 듯이 위선을 떠난다. 여성의 몸이 돈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왜 여성의 투표권은 매수될 수 없는가? 바로 그런 현상이 콜로라도주와 기타 여러 주에서 일

¹ Dr. Helen Sumner, 『Equal Suffrage』.

² Dr. Helen Sumner, 『Equal Suffrage』.